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11.21.(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 이경희,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박세진, 임태순 위원 8인(안서연, 백명희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구종상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1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

- 영상 특화형 자막 뉴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할 때 뉴스 제목과 함께 이미지, 기자 이름이 함께 소개되는 코너가 있는데, 좋은 안내로 생각됨. 다만, 개선했으면 하는 경우는 현장성이 강조되는 영상이 돋보이게 보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일 수능 예비 소집일, 특검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노만석 검찰총장 출근길 묵묵부답 등 현장성 영상이 강조되어 보도되면 좋겠습니다. 또 제목 중심이 아니라 울산화력 붕괴 매몰자 브리핑처럼 제목 중심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자막에 표기해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청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막을 읽고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씬(Scene)속 뉴스] 가벼운 미담성, 가십성, 화제성 인스타그램 기사 돋보여, 농인 손님에 수어 인사, 노소영이 밝힌 이혼 소회, 트럼프의 천마총 금관 등 영상화 화제성이 결합된 뉴스가 관심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발생한 주요 영상을 기반으로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저희 회사 뉴스의 영상성을 강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여력이 좀 더 되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처음에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이렇게 할 때 체포되는 영상 장면이 약간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저희가 보도 채널이어서 무슨 사안이 터지면 사안에 관련된 영상 보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영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료 영상을 쓰게 되고 그 영상이 들어오는 경우는 몇 시간 뒤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몇 시간 정도가 좀 부실한 영상이나 과거 자료화면을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체포의 이 경우도 저희가 영상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이 자꾸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부실해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도 채널의 약간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연결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되는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 '씬속뉴스'는 우리사회 화제로 떠오른 이슈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이 콘텐츠를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썬속뉴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다큐디깅’을 시청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다큐디깅’은 다큐멘터리 전문채널로 보도국에서 선정한 사건들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다큐디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보자고, 인생영킷, 회장님의 그날, 돌려보세, 밀리토리, 잠못세, Dd컬처 등 7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소 사회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모르고 지나친 사건, 어렵 뜻이 알고 있었던 사건 등에 대해 제대로 알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개별적 사건의 이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 ‘돌려보세’ 기사 중 청소년범죄 무인점포습격 사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인점포 점주가 절도행위로 잡힌 문제청소년과의 대화 내용이었습니. 문제청소년들은 자신의 절도행위를 범죄행위인줄 모르고, 점주가 없어서 절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주가 있어도 절도행위를 한다고 뻔뻔하게 대꾸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단톡방에서 절도행위를 자랑하고 이를 자신의 인기라고 착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인점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범죄율 또한 단시간에 698건에서 1363건(2022)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범죄행위의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위험적 현실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인점포에서 행해지는 범죄행위는 연령과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 질수 있다는 기사를 다루어 주길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 ‘다큐디깅’은 메인 유튜브 채널의 서브 채널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 TV에서 저희가 만든 다큐 제작물들을 조금 시간을 줄여 재가공, 재편집해서 내보내는 그런 채널입니다. 조금 지난 것들이 많고 다만 지난 것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추려서 다시 한 번 구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다큐디깅’은 저희가 관심 갖고 좀 더 키워보려고 하는 채널인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무인점포 범죄 건은 다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석 위원

- [현장잇슈] 멧돼지 포획 취재갔다 죽을 뻔...오늘만 살 듯 돌진하는 그놈들 운명은?
10월이 되면 농부들은 본인들이 피땀흘려 재배한 농작물들을 수확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 농작물들이 누군가의 의해 수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농작물이 자연재해 등에 두 눈 뜨고 속수무책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농사 짓는 일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이번 ‘현장잇슈’에서 멧돼지가 지나간 자국은 처참할 정도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장면인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단원과 취재기자가 직접 야간에 현장에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하는 장면을 리얼하게 보여주어 일반 시청자들에게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실상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연합뉴스tv가 시의적절하게 방송을 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퇴치 운동에 앞장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승강기 도시 거창 "인구를 울리다" [리부팅 지방시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어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특히 군 단위 소재지

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가운데, 거창군 인구가 3년전 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그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3%가 되는 독특한 군소재 지자체입니다. 거창군은 농어촌자율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성화대학교 등 교육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주시로서 자리매김하여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의 승강기 도시 거창 "인구를 올리다"방송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교육-직장-정주-출생"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된다면 인구소멸을 멈추고 오히려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의미있는 방송이었다고 사료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현장잇슈'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체험 기반 형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농사를 다 망치고 있어서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차를 타고 새벽 시간대, 밤 시간대에 총으로 직접 멧돼지를 포획하는 그런 장면들을 다 담아내서 완성해낸 그런 콘텐츠인데요. 상당히 인상적이고 현장성이 강한 콘텐츠입니다. 유튜브용 콘텐츠이긴 하지만 앞으로 현장성이 있는 조금 더 많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합뉴스TV 콘텐츠가 볼 만 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리부팅 지방시대'는 저희가 언론사로서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고 지방의 경제 등 여러 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연합뉴스TV가 선두에 서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중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계순 위원

- "킵보드 없애주세요"...서울시민 98% '킵보드 없는 거리' 확대 찬성

서울시가 '킵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후 설문 조사한 결과, 시민 98%가 킵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킵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습니다. 킵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또,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킵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킵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3.2%가 킵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동킵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30대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 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서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으며 역시 여중생 2명이 함께 탔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만 16세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동 킥보드 등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0대들의 잇따른 무면허 킥보드 사고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키크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했지만, PM 전용면허 도입 등 PM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7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데,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하여 킥보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면허 인증 없는 대여, 청소년 무면허 조장(대여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업체들이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무면허 이용 금지, 안전모 착용,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킥보드 주차구역 준수 등 킥보드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업체를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법 개정 이후 면허 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언론에서 안전캠페인을 홍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우리 연합뉴스TV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캠페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도 요즘 전동킥보드를 보면서 거리의 무법자가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문제가 민생·안전과 직결되지만 관련 법안이 정치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언론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사라진 청년들...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20대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돼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의해 사기를 당하거나 납치돼 있는 국민이 1천명에서 2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발빠르게 캄보디아 현지로 특파원을 파견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현지 교민들의 인터뷰, 범죄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가해자이기도 한 문제의 복잡성,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차원의 협력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생하게 잘 취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내용 중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대부분이 20-30대이며 이 중

45명이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청년일자리 부족과 지방 취업난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은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지방대 출신 청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문신남 청년 구출이 보여주گی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는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적 민간 차원의 활동보다는 양국간 정부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방송내용과 상충된다는 느낌도 있어 김병주 의원 인터뷰는 다루지 않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APEC 등으로 이번 문제가 다소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연합뉴스TV 스페셜] 뷰티풀 K-뷰티, K-Pop, K-드라마, K-푸드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류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일본 등 유명 메이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화장품에서도 최근 K-뷰티라는 이름으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서 퍼스널 컬러 찾기, 메이크업 체험관 소개, 화장품의 날 지정 등 K-뷰티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있게 시청하였습니다. 음악과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가 음식과 패션, 화장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 국내 뷰티 업계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뷰티 업체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로드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동 프로그램에서 서울시 지원 정책 등이 소개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등은 다루지 않아 다소 그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캄보디아 사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곧바로 취재기자 2명과 카메라기자 2명, 총 두 팀 4명을 한 2주 정도를 현장에 특파해 취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가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뉴스프리즘'에서 다뤄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캄보디아 사태의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취업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등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던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관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년 일자리 부족이나 지방 취업난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거였습니다. 김병주 의원 인터뷰 건은 김병주 의원이 문신남 청년 구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쌓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적절했나 하는 문제는 저희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다루겠습니다.

- K-뷰티 등 K관련한 저희 스페셜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K-드라마, 푸드, 팝, 뷰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강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한번 조명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정책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안서연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안서연 위원(서면 제출)

연합뉴스TV의 APEC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PEC 관련하여 정상들간의 회담 및 행사는 연합뉴스TV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는 그 이외에도 숙박 요금 폭등 논란 등에 관하여 다루는 등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요소들을 시의적절하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의 규모 등에 관하여 보도한 것도 APEC 준비에 관하여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요소였으며, 이는 연합뉴스TV의 북한, 외교 전문 기자분이 전문성있게 보도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차은우와 지드래곤의 만남 등의 에피소드는 K컬처 시대에 국민들 및 전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들에 관한 것으로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APEC과 같은 대규모 외교행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 합의 내용 발표에 치중하다보면 행사를 위해 수고한 지자체와 경찰, 기업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감안해 현장의 대응과 문화행사 등에도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백명희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백명희 위원(서면 제출)

왜 제 발로 캄보디아 갔나...청년 취업난·지방 소외탓?, 캄보디아 사태로 국내로 송환된 캄보디아 압송자 중 상당수는 20~30대 젊은 층, 그리고 지역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구조적 긴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 특히 지방 청년들의 취업난과 이번 사태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상화/인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불안정 및 불안정한 취업상태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의 경우 당장에 경제적 성공이라든지 정상적인 취업이라는 수단이 합법적으로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과연 청년 취업난이나 지방 소외가 캄보디아 사태의 본질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요즘 20~30대 젊은 층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을 미디어로 자주 접하며 몸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제 발로 캄보디아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동남아 범죄 연관 구인글을 신속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돈을 버는 유혹 자체를 차단하면 이런 피해가 더 적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젊은 층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보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뉴스프리즘’ 기획보도로 이번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건의 원인과 구조적 배경 등을 짚는 리포트였습니다. 청년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이 왜 이번 사태에 연루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의 여러 원인 중에 청년, 지방의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적 양극화 문제로 좁혀서 살폈습니다. 다만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간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 리포트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11월12일 [캄보디아①/김규희]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범 53명 기소...총책 추적’ 등 후속 보도를 통해 송환자 상당수가 사실상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박세진 위원

- "모두 0점 처리"...챗GPT 집단 커닝 정황에 연세대 술렁, AI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대학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연합뉴스TV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속사정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놓고 쓰게 할 수도, 아예 못쓰게 할 수도 없는 현실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AI의 부적절한 활용이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시청자와 사회 모두가 AI 기술의 어두운 면에도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2026년 예산안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AI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산업 발전 못지않게 부작용을 예측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는 선제적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가 AI 확산 부작용에 대한 유형별 사례, 사전 방지책, 국외 제도 비교와 국내 정책 보완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연속적인 기획 보도를 통해 시청자와 사회가 함께 AI 시대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 이정재·정우성 아들이이경도 당했다..AI 범죄 골머리, 연합뉴스TV가 이정재·정우성·이이경 등 유명인들이 피해자가 된 AI 기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적시적으로 보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연예인 사칭 로맨스 스캠이나 합성 이미지, AI로 만들어진 허위 영상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AI 범죄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도에서 AI 기반 허위 영상, SNS 합성 사진, 챗봇 등을 이용한 범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경찰의 집중 단속 및 엄정 대응 방침까지 언급함으로써 해당 사안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지금 AI기술이 초기에 뿌리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이 관심을 갖고 컨센서스(합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가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 최근 AI가 상용화되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사례가 사용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드러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작된 기사입니다. 가능한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했는데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

으로도 이러한 보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

11월 3일 뉴스현장 「[단독] "독도 어디 영토?" 물어보니...국회도서관 AI "결론 못 내린다" 이번 연합뉴스TV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질문에 국회도서관 AI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답했다」는 보도는, 공공기관에서 운용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사 인식 오류 문제를 지적한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보도는 국회도서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생성형 AI '아르고스'가 독도 영유권, 이완용,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안에 대해 모호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내놓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반 상용 AI보다도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공 데이터의 검증 체계와 학습 알고리즘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인공지능이 공공 분야에서 활용될 때 요구되는 정확성·객관성·책임성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같은 공적 기관의 AI가 '역사적 사실'을 중립이라는 명목으로 회피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역사 교육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시스템 오류의 구체적인 원인(예: 데이터 학습 출처, 검증 절차, 외부 개발사 관리 책임 등)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추후 후속 보도가 다루어 질 수 있다면, 국회도서관과 개발사의 입장, 향후 개선 계획, 공공 AI 검증체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다뤄준다면 더욱 완성도가 높은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도는 기술이 공공성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날카롭게 짚은 좋은 탐사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TV가 앞으로도 사회적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공AI의 방향을 제시하는 보도를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국회 도서관의 AI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는 거고, 사실은 역사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도가 공공기관의 AI 위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중요한 기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AI의 상황이라든지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AI 진척도 같은 것을 저희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 25년 10월 16일(목) 뉴스투나잇, '이중문에 쇠창살까지, 중국어선 또 왔다... 800여척 식별' 특수진압대의 진입 장면, 선원들과의 대치 상황을 비롯 실제 현장 영상과 무전 음성을 적극 사용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고, 구체적인 통계 제시로 문제의 규모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후속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공익적 측면을 강화한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왜 불법조업이 반복이 되는지(예: 중국 연안 어족고갈 등) 구조적 원인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국내 어민들이 어떤 경제적 피해 혹은 어장 훼손,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인터뷰 또는 사례 제시가 없어서 문제의 심각성과 인적, 사회적 영향이 약하게 전달 되었다고 봅니다. 원인 분석을 구체화하여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국제 협력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보다 나은 보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현장성, 시의성, 공익성은 높았으나

구조적 원인이나 피해 당사자 목소리, 그리고 외교적 맥락이 보완된다면 보다 심층적 탐사 보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25년 10월 20일(월) 뉴스리뷰, '캄보디아 송환자들 58명 구속심사...5명 석방'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피싱·로맨스 스캠 범죄를 국내 송환 이후 조사 상황까지 연속적으로 보도하여 범죄 대응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사건 맥락을 균형있게 전달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단순 처벌이 아닌 책임 구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청자에게 알린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등 범행 방식 언급은 있었으나, 실제 피해자가 어떤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건의 심각성 전달이 다소 약화돼 있습니다. 왜 캄보디아 등 동남아가 스캠 거점이 되는지(취약한 치안, 저비용 인력, 온라인 송금기술 등)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범죄 피해 실체를 제시하여 재범 예방 정보를 강화하고 제도적 대응 방향 제시를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본 보도는 송환 → 구속 심사 → 수사 방향이라는 사건의 진행 흐름을 명확히 제시해 시청자 이해를 도운 점에서 긍정적이나 다만 범행 피해의 실체, 국제 스캠 조직 구조, 제도적 재발 방지책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보완된다면 더욱 공공성과 설득력이 제고된 보도로 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리포트 하나에 다 담다 보니 매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후속 리포트에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캄보디아 송환 관련 리포트가 한동안 매일 쏟아졌고 범행 수법, 실태 등은 앞서 리포트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구속심사 결과를 위주로 다룬 것이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른 리포트들에서 다루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후속 보도에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